

高麗 太祖 王建의 對新羅政策

曹 凡 煥*

목 차

1. 머리말
2. 王建의 세력 형성기와 新羅 朴氏王 시대
3. 王建의 古昌 전투 승리와 금성 방문
4. 王建의 외교 승리와 敬順王의 高麗 歸附
5. 맺음말

1. 머리말

고려 태조 왕건은 935년 11월에 신라 경순왕을 개성에서 맞이하였다. 경순왕은 견훤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음에도 왕건에게 귀부하였던 것이다. 왕건이 918년에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이후 약 17년만에 이루어진 일로서 그의 대신라정책이 성공을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태조 왕건의 대신라정책에 주목하였다.¹⁾ 그 결과 대체로 신라에 대한 고려 태조 왕건의 정책이 우호적이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

* 서강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 1) 태조 왕건의 대신라정책과 관련한 전고는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왕건의 대신라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朴漢高, 『高麗建國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文暲鉉, 『高麗太祖의 後三國 統一研究』, 螢雪出版社, 1987.

河炫綱,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1988.

文秀鎭, 「王建의 高麗建國과 後三國統一」, 『國史館論叢』 35, 1992.

朴漢高, 「고려의 건국과 호족」,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93.

陰善赫, 『高麗太祖王建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朴龍雲, 「고려전기 慶州의 위상에 대한 고찰」, 『慶州史學』 16, 1997.

- 2) 하현강은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93, 32쪽에서 옛 신라 영역에서 성장한 호족 세력들은 고려와 후백제의 각축이 전개되는 동안 견훤의 무력주의 노선을 배척하고 평화주의를 표방한 태조 왕건을 지지함으로써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씨의 이러한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조 왕건의 대신라정책은 평화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즉 왕건은 즉위한 이후 신라를 정복의 대상이 아닌 화합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왕건이 취한 對新羅政策의 한 단면을 알아낼 수 있다.³⁾

그런데 고려와 신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일단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배경이나 내용, 성격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⁴⁾ 심지어 고려와 신라의 우호 관계가 이루어지는 동기가 왕건의 개인적인 평화주의적 입장만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려의 건국 직후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태조 왕건의 개인적인 성향이 정책의 기초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려의 신라 정책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태조의 전략적인 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려의 대신라정책이 일관되게 우호적이었다기 보다는 시간적인 변화와 더불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할 때 왕건의 신라 정책을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태조 왕건의 즉위(918)부터 경애왕이 시해되는 시기(927)까지의 대신라정책을 검토할 것이다. 이때는 고려에 있어 왕조의 기반 안정과 더불어 여러 세력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둘째로 경순왕의 즉위(927)부터 태조의 금성 방문(931) 때까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시기는 삼국간의 관계가 전환을 맞게 되는 시기로서 이로부터 고려는 신라, 후백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 셋째로 태조가 금성에서 돌아온 후부터 신라의 고려 귀부(935)까지를 검토할 생각이다. 이는 고려가 통일을 눈앞에 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신라가 고려에 귀부한 사실에 대하여 혼란을 극복한 고려에게 주어진 대가라고 말해진다. 그러나 도리어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고려가 이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라의 정통성과 권위를 이어 가기 위해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에 취한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이 시기 역사의 이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 박한설도 태조의 대신라정책을 한마디로 '평화주의적 외교정책'이라 하였다(박한설, 앞의 책, 1993, pp. 52~73).

- 3) 『三國史記』 12, 경명왕대와 경애왕대 그리고 경순왕대의 기록과 『高麗史』의 태조 왕건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았을 때 고려와 신라와의 관계는 한마디로 우호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라와 고려 양국 사이에 갈등이나 교전 관계의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료 편찬시 신라를 계승한다는 입장에서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4) 왕건이 친신라정책을 취한 이면에는 신라 왕실의 환심을 얻어 신라가 후백제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으면서 아울러 고려로 끌어들이려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후백제 고립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朴漢高, 앞의 책, 1993, p. 5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2. 王建의 세력 형성기와 新羅 朴氏王 시대

왕건은 918년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지만 집권 초기의 취약한 상황에서 쉽사리 벗어 나가는 힘들었다.⁵⁾ 이에 그는 매우 겸손한 태도를 취하며 조심스럽게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왕건은 취약했던 기반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 호족과의 우호 유지가 필요하였다.⁶⁾ 또한 그는 독자적인 세력을 마련하고자 여진족을 막는다는 군사적인 목적을 내세워 평양에 서경을 설치⁷⁾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결국 왕건의 대호족 정책을 위시한 일련의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왕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그러면 왕건은 신라에 대하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을까. 당시 신라는 내부적으로 김씨를 제치고 박씨 神德王을 이어 景明王이 왕위에 있었다.⁹⁾ 그렇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김씨왕들에 비해 합리적인 왕실의 권위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중앙집권력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만큼 신라는 고려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왕건은 신라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만큼 신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신라의 정치적인 동향에도 눈을 떼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의 정치적인 동향은 바로 지방 호족들의 향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라에서 먼저 고려에 사신을 보내왔다.

A. 신라가 처음으로 사절을 파견하여 교빙하는 의식을 치루었다

(『高麗史』 1, 세가, 태조 3년 봄 정월)

- 5) 왕건이 즉위한 나흘 뒤에는 馬軍將軍 桓宣吉의 모반사건이 있었다. 또한 청주 사람 林春吉을 비롯한 몇몇 사람의 반란 음모가 그것이다. 왕건은 이러한 반란이나 음모를 모두 해결하였지만 이는 그의 집권 초기의 취약한 상황을 말해준다. 고려 건국 직후의 태조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洪承基, 「高麗初期 政治와 風水地理」, 『韓國史市民講座』 14, 1994, pp. 29~30 참조.
- 6) 지방의 호족들에게 몸을 낮추고 많은 선물을 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權眞澈, 「高麗太祖의 重幣卑辭策에 關한 研究」, 『江原史學』 12, 1996 및 鄭智泳, 「高麗太祖의 豪族政策」, 洪承基編, 『高麗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pp. 177~216 참조.
- 7) 『高麗史』 1, 세가, 태조 원년 9월 丙申
- 8) 왕건이 후백제로부터 온 사신을 환영한 것도 이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즉 왕건은 집권 초반기에 대외적인 문제보다는 대내적인 문제 수습에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당연히 후백제와 군사적인 대립을 피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이는 태조의 즉위 초반의 안정을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 9) 나의 글, 「新羅末 朴氏王의 登場과 그 政治的 性格」, 『歷史學報』 129, 1991 참조.

A의 기록은 왕건이 신라의 경명왕이 보낸 사신을 맞아들이고 신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당시의 사정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라에서 먼저 사신을 보내왔다는 것 자체가 왕건을 인정한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즉 고려를 반란 세력으로 보지 않고 국가로서 인정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신라의 의도¹⁰⁾가 어디에 있었던 간에 고려 태조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후백제의 견훤도 있었는데 유독 왕건에게 사신을 보내온 것이 왕건에게는 기대 이상의 일이었다고 보아진다. 더구나 고려의 내부적인 사정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더욱 호재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이는 당시 전쟁을 원치 않았던 고려의 내부 사정과의 맞아 떨어졌다. 이 당시를 ‘羅麗同盟時期’ 혹은 ‘聯羅攻濟’의 시기로 지칭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라에서 갑자기 사신을 보내와 구원을 청하였다. 이유는 견훤이 군대를 이끌고 신라 지역을 침공하여 大良과 仇史의 두개 郡을 탈취하고 進禮郡에 이르렀기 때문이다.¹¹⁾ 이에 왕건은 군사를 파견하였고, 견훤측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이때의 견훤군은 騎兵 1만이 참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견훤군이나 고려군의 통상 병력 3~5배에 달하는 대단히 많은 숫자였다.¹²⁾ 왕건은 견훤이 이끈 병력의 규모가 당시의 다른 예에 비하여 매우 컸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의 군대가 경주와 가장 인접한 곳인 진례성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 고려의 군대를 파견하였다는 것은 왕건도 일대 접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왕건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군대를 파병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우선 신라가 고려와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처음으로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왕건은 이러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야려진다. 비록 후백제와 맺었던 화친관계를 어기는 상황이 되더라도 군대를 파견하여 신라를 돕는 것이 그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파병을 함으로써 고려를 신라와 같은 위치에 세우기 위한 노력도 내재해 있었던 것으로 해야려진다.

왕건의 이러한 군사적인 행동은 당연히 후백제와의 불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태조의 집권 이후 후백제와 유지되던 군사적인 평화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왕건이 즉위

10) 신라에서 사신을 보낸 것이 왕건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견훤의 군사적인 위협이 계속되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의도가 내재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즉 고려를 통하여 후백제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기초를 닦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나의 글, 앞의 논문, 1991, p. 15).

11) 『高麗史』 1, 세가, 태조 원년 3년 10월

12) 申虎澈, 『後百濟甄萱政權研究』, 1993, p. 131

한 이후 후백제와 맺었던 외교관계에 틈이 벌어졌으며 특히 낙동강 일대의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후백제와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왕건은 대신라정책에 있어서는 후백제보다 한발 앞서 나가게 되었다. 적어도 신라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아진다. 태조 왕건의 자신감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B. 신라 高麗府 장군 能文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투항하였다. 그 성이 신라 수도에 가까웠기 때문에 신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들을 위로하여 돌려보내고 다만 그의 부하들인 시랑 諫近과 대감 明才, 相述, 弓式 등만 남겨두었다(『高麗史』 1, 세가, 태조 8년 10월 己巳)

B의 기록은 高麗府의 장군 能文이 투항해 오자 왕건이 그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고을부가 신라 수도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신라 수도와 인접한 지역의 호족이 투항해 왔다는 것은 왕건으로서는 매우 달가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능문을 돌려 보낸 것은 바로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아진다.

이후 왕건은 신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견훤과 군사적인 대결을 자주 치렀다. 물론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군사적인 대립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견훤이 왕건에게 절영도의 옥색말을 보내자 왕건이 그것을 받았다는가¹³⁾ 曹物城 전투에서 質子의 교환이 있었던 점¹⁴⁾등으로 미루어 볼 때 왕건은 견훤과 군사적인 충돌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처하였다. 이에 신라에서는 사신을 파견하여 견훤을 믿지 말라든가¹⁵⁾ 혹은 군대를 출병하여 견훤의 군대와 싸워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⁶⁾ 신라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왕건은 견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차서 스스로 쓰러지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하였다.¹⁷⁾ 왕건의 이러한 태도는 후백제와의 군사적인

13) 『高麗史』 1, 세가, 태조 7년 8월

14) 『三國史記』, 50 견훤전 동광 3년(925) 10월. 그러나 『高麗史』 1, 세가, 태조 8년 을해일에는 마치 견훤이 왕건의 군대를 겁내어 질자를 교환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15) 『三國史記』 12, 경애왕 2년 11월

16) 『三國史記』 12, 경애왕 3년 4월. 당시 신라는 후백제가 고려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사를 동원하여 자국에 대규모로 공격해 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경애왕과 그 집권세력은 고려와 후백제 사이의 평화관계보다는 군사적인 충돌을 원하였으며 후백제를 멸망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음선혁, 「新羅 敬順王의 卽位와 高麗 歸附의 政治的 性格」, 『全南史學』 11, 1997, p. 122). 그러나 신라측에서 과연 후백제의 멸망을 바랐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다. 신라측으로서는 고려와 후백제의 대립이 신라의 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17) 『高麗史』 1, 세가, 태조 9년 여름 4월

대결로 국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신라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왕건의 독자적인 위상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왕건의 후백제에 대한 태도가 신라 경애왕에게는 매우 조바심을 내게 하였던 것 같다. 이에 경애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은 태조 왕건을 신라 왕실에 불러들이려 하였다.¹⁸⁾ 그러나 왕건은 어떠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신라 왕실에는 가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고려와 신라의 외교적 관계에 있어 왕건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갑자기 왕건의 대신라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바로 견훤이 경주에 침입하여 경애왕을 시해하고 경순왕을 옹립한 것이다. 견훤이 경주에 침입하기 바로 직전에 왕건은 경애왕으로부터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 받았다. 이에 왕건은 시중 公萱 등 장수들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가 후백제의 군대를 막게 하였으나 그보다 먼저 견훤의 군대가 경주에 쳐들어와 경애왕을 시해한 것이다. 이에 왕건은 군대를 이끌고 공산 동수 전투에서 견훤군과 맞서 싸웠으나 패배하였다.¹⁹⁾ 이는 후백제의 군사력이 고려보다 우세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왕건의 신라에 대한 화친정책과 탄력적인 군사 동원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알려준다. 더구나 견훤에 의해 신라에는 경순왕이 왕위에 오른 만큼 왕건은 대신라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다.

C-1. 지난번에 재상 김웅렬 등이 장차 그대(王建:필자 주)를 불러 서울로 들어오게 한 것은 마치 작은 자라가 큰 자라의 울음을 따라 모이는 것 같고 이는 종달새가 날개를 헤친 것을 보고 새매의 날개로 착각한 것이니 반드시 산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종묘 사직을 폐허로 만들 것이므로 내(甄萱:필자 주)가 먼저 조적의 채찍을 잡고 홀로 한월을 휘둘러 못 신료에게 밝은 해를 두고 서약하고, 6부(경주)를 올바른 법도로써 타일렀

18) 『三國史記』 50, 견훤전에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전번에 (신라) 국상 김웅렬 등이 장차 足下(태조)를 서울로 불러들이려 하였으니 이는 마치 작은 자라가 큰 자라 소리에 응하고 종달새가 새매 날개를 헤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이 기록만으로는 경애왕이 왕건을 불러들이려 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다. 다만 경애왕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19) 태조 왕건은 견훤군에게 포위되었고 申崇謙과 金樂 두 장군을 비롯한 5천여 고려 정예기병을 잃은 후에 단신으로 살아 돌아오는 위기를 당하였다(『高麗史』 1, 세가, 태조 10년 9월).

다. 그런데 뜻밖에 간신들은 도망을 치고 임금은 변을 당하여 죽었으므로 드디어 경명왕의 외사촌이고, 현강왕의 외손을 받들어 권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여, 위태로운 나라를 재생시켜 주었으며, 임금을 잃은 나라에 임금을 갖게 한 것이 이번 걸음에 있었던 일이다(『三國史記』 50, 견훤전)

C-2. 그대는 털끝만한 작은 이익을 보기 위하여 천지의 두터운 은혜를 잊고 임금을 목베고 궁궐을 불질렀으며, 신료들을 죽여 젓을 담고, 관료와 백성들을 도륙하였으며, 종실의 여자를 취하여 같은 수레에 태우고 보물을 바리에 실어 갔으니 큰 죄악은 걸왕·주왕보다 더하고, 불인함은 제 어미를 잡아먹는 짐승보다 심하다(『高麗史』 1, 세가, 태조 10년 12월 및 『三國史記』 50, 견훤전)

위의 C-1과 C-2의 글은 견훤과 왕건 사이에 오고간 국서의 내용이다. 그런데 견훤의 경애왕 시해 사건을 놓고 견훤과 왕건은 모두 신라에게 지극한 충신이었던 듯한 입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외교문서였던 탓에 지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과시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신라에 대하여 군신관계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²⁰⁾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삼국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위에서 주목되는 것은 왕건이 신라왕에 대하여 존왕의 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왕건이 즉위한 이후 대신라정책에 있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일이다. 그렇다면 왜 왕건은 존왕의 의를 내세웠을까 궁금하다. 물론 외교문서였던 관계로 신라에 대하여 지극한 충신의 예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좀 더 다른 뜻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즉 태조는 즉위 이후 신라 박씨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견훤에 의하여 경순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사정이 달라졌음을 파악하였다. 그것은 신라 왕실의 정치세력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친견훤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순왕은 경애왕의 동생 효렴과 재상 영경을 후백제로 데리고 가도록 하였다.²¹⁾ 이는 경순왕이 이들의 반란 가능성을 두려워한 때문이었다.²²⁾ 그러면서 경순왕은 측근을 요직에 등용하여 박씨와 밀접하였던 세력을 배제하였던 것이다. 이는 곧 고려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20) 이에 견훤이 신라에 대하여 적대적인 인식 또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申虎澈, 앞책, 1993, p. 115 참조).

21) 『三國史記』 50, 견훤전

22) 나의 글, 「新羅末 敬順王의 高麗 歸附」,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1994, p. 409.

친고려세력을 신라 왕실에서 제거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왕건은 존왕의 의를 내세움으로써 신라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신라 왕실이 더 이상 고려와 관계가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고려의 정치적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자 왕건은 존왕의 의를 내세워 지극히 충신인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왕건의 의도된 정치적 계산이었다고 보아진다.

3. 王建의 古昌 전투 승리와 금성 방문

앞에서 태조 왕건이 공산전투에서 견훤군에게 대패한 이후 신라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태조가 사신을 보내어 경애왕의 죽음을 애도 하였지만 신라 왕실과 가졌던 긴밀한 관계는 사라졌다고 판단된다. 도리어 후백제의 영향력이 신라 왕실에 강하게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왕건은 어떤 방법으로 다시 신라 왕실에 접근하였을까 궁금해진다.

D. 태조가 견훤과 고창군 병산 아래에서 싸워 이겼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永安, 河曲, 直明, 松生 등 30여 군현이 차례로 이어서 태조에게 항복하였다. 2월에 태조가 사신을 보내어 승리를 알리니 왕이 답례로 사람을 보내 방문하고 아울러 서로 만나기를 청하였다(『三國史記』 12, 敬順王 5년)

D의 기록은 태조가 13(930)년에 고창군 병산 전투에서 견훤군에게 승리하자 바로 경순왕에게 사신을 파견하였다고 한다. 고창전투의 승리는 바로 고려의 경상도 방면에서의 지배권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²³⁾ 그리고 태조가 경순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승전을 알린 것은 견훤

23) 기왕에 고려와 후백제의 전투는 주로 세 방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는 경상도 방면이고, 둘째는 충청도 방면 그리고 셋째는 해상이었다. 경상도 방면은 원래 신라의 지배 영역이지만, 점차 호족들이 독립하여 대체로 왕건에게 귀부하는 형편이었다. 왕건의 해상작전은 북으로부터의 육상 작전과 상응하여 소백산맥 동쪽 기슭을 따라 남북으로 고려의 방어 지대를 구축하여 견훤의 신라 진출을 막으려는 계획이었다(李基白, 『王建』, 『한국인의 인간상』 2, 1965 ; 「太祖 王建과 그의 豪族聯合政治」, 『高麗貴族社會의 形成』(一潮閣, 1990) p. 24).

을 격파한 후의 국력에 대한 과시와 친견원적이었던 경순왕에 대한 불만이 담긴 승전통보였던 것으로 헤아려진다. 태조가 후백제와 벌인 고창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고려쪽의 입장은 후백제에 비해 유리해졌던 것이다. 그런 만큼 대신라정책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E. 왕이 呢於鎭으로 갔다. 北彌秩夫城 성주 萱達이 南彌秩夫城 성주와 함께 와서 항복하였다(『高麗史』 1, 세가, 태조 13년 2월 庚子)

태조 왕건은 경순왕이 만나자는 요청을 했으나(D 기록) 呢於鎭(신광진)에 들러 北彌秩夫와 南彌秩夫 성주의 내투를 받았다.²⁴⁾ 즉 그는 경주 근처까지 왔다가 돌아갔던 것이다. 왕건의 이러한 군사적인 행동 뒤에는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었다고 짐작된다. 다시 말하면 그 때 왕건은 금성 북쪽 50여리의 곳에 니어진을 설치하고 고려의 군사를 주둔시켜 신라를 감시하는 작전을 쓴 것이다.²⁵⁾ 그렇다고 견훤처럼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공격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러한 군사적인 행동은 삼갔다. 도리어 외곽에서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신라 왕실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다. 결국 경순왕은 왕건에게 다시 금성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⁶⁾ 이에 태조가 응하여 신라의 수도인 금성을 방문하였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왕건이 경순왕의 청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궁금하다. 무엇보다도 신라의 내정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었을 것이다.²⁷⁾ 물론 니어진에서 신라의 왕실을 감시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후백제와 더 이상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가 컸던 것이다. 따라서 신라 왕실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왕건은 금성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그는 고려의 신라 병합에 대한 생각까지도 가지고 신라로 가지 않았을까 싶다.

24) 『高麗史』 1, 세가, 태조 13년 2월 경자일

25) 李基白, 『韓國史新論(新修版)』, 1990, p. 144.

26) 『高麗史』 2, 세가, 태조 14년 봄 2월 丁酉. 그런데 『高麗史節要』 1, 태조 14년의 기록을 보면 경순왕이 태수 겸용을 보내어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상의 두 기록 가운데서 『고려사』의 기록이 보다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河炫綱은 “전후의 사정으로 보아 『高麗史』의 기록이 타당하며, 『高麗史節要』의 기사는 오류로 생각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씨는 “이 시기에 신라에서 공식적으로 ‘귀순’의 뜻을 밝힐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다(河炫綱, 앞의 책, 1988, p. 64 註 20) 참조). 필자도 씨의 견해를 따른다.

27) 나의 글, 앞의 논문, 1994, p. 413.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왕건이 경주에 갈 때 50여 명의 기병만을 거느리고 신라의 서울 경내에 들어갔다는 점이다.²⁸⁾ 이는 왕건이 견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아진다.²⁹⁾ 견훤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왕을 시해하고 돌아간 것과는 달리 친선적인 행동을 신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왕건에 대한 위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헤아려진다. 그러면 왕건은 신라 왕실에 머물면서 무엇을 하였을까.

F. 辛亥일에 왕이 신라로 갔다. (중략) 여름 5월 丁丑일에 왕이 신라왕과 태후인 竹房夫人, 상국 裕廉, 잡간 禮文, 파진찬 策宮·尹儒, 한찬 策直·昕直·義卿·讓餘·寬封·含宜·熙吉 등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高麗史』 1, 세가, 태조 14 년)

위의 기록을 보면 왕건은 경주를 방문하여 약 3개월 정도³⁰⁾ 신라 왕실에 머물렀으며 그 달 5월에는 경순왕과 왕비 그리고 여러 신라의 관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한다.³¹⁾ 우선 그는 왕과 왕비 그리고 당시 상국이었던 유림에게도 선물을 주었는데 이들에게 선물을 한 것은 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왕건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신라왕에게 선물을 한 것은 더 이상 신라의 신하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다른 관료들에게 선물을 한 것은 신라 왕실에 머무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거나 혹은 신라 왕실에 친왕건파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파악된다. 또한 왕건은 신라와의 병합에 대한 생각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신라 왕실의 어느 누구와 손을 잡을 수 있는지, 누구들이 그에게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가 왕과 군신들에게 선물을 한 것은 고려와 신라의 병합을 염두에 둔 사전조치였다고 헤아려진다.³²⁾

이렇게 보아오면, 왕건이 약 3개월 정도 신라 왕실에 머문 구체적인 이유를 어느 정도 추측

28) 『高麗史』 2, 세가, 태조 14년 辛亥

29) 음선혁, 앞의 논문, 1997, p. 148. 그러나 이미 니어진에 군대를 주둔시켜 신라 왕실을 감시하고 있었으므로 적은 병력으로 신라 왕실에 들어가더라도 위협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30) 태조 왕건은 경주에 93일간 머물렀다고 한다(음선혁, 앞의 논문, 1997, p. 147).

31) 왕건이 금성을 방문하여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F의 기록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선물을 한 사실만이 주목된다. 그러나 선물을 하였다는 사실을 검토하게 되면 왕건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32) 나의 글, 앞의 논문, 1994, p. 414. 한편 음선혁은 왕건이 관료들에게 선물한 것은 그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신라의 고려에 대한 정책을 고려의 의도대로 추구해 가려고 했을 것으로 보았다(음선혁, 앞의 논문, 1997, p. 141).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신라 왕실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³³⁾ 3개월 정도 신라 왕실에 머물면서 고려에서 떠나올 때 세웠던 계획을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고려로 돌아갈 때 왕과 군신들에게 선물한 것은 그의 의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왕건의 경주 체류는 경순왕 일파에게 상당한 정치적인 압박감을 주었을 것임은 당연하다고 보아진다.

G. 왕이 돌아오는데 신라왕이 혈성까지 나와서 전송하고 유렴을 인질로 삼아 왕을 수종케 하였다(『高麗史』 2, 세가, 태조 14년 여름 5월 癸未)

왕건은 경주에서 고려로 돌아올 때 신라의 상국인 유렴을 질자로 삼았다. 유렴은 경순왕을 옹립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한 인물로 파악되고 있다.³⁴⁾ 따라서 유렴을 질자로 한 것은 그를 고려에 불모로 둔 상태에서 신라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줄 안다.

신라에서 돌아온 왕건은 같은 해 8월 甫尹 善規 등을 보내어 신라 왕에게 안장 갖춘 말과綾羅綵錦을, 백관들에게는 綵帛을, 軍民들에게는 차와 幘頭를, 승려들에게는 차와 향을 각각 차등 있게 선물하였다.³⁵⁾ 왕건의 이러한 조치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왕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선물을 하였다는 것은 왕건의 위상을 높이는 데는 더 없는 행동이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왕건은 이미 신라와 고려가 君臣 관계에서 벗어난 것을 알리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제는 고려가 君의 나라로 신라가 臣의 나라로 바뀌는 인상까지도 주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일반 백성들은 고려에서 보내온 선물을 받고 왕건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였을 것으로 보아진다. 몇 달 전 왕건이 금성 방문을 마치고 고려로 돌아갈 때 그는 이미 신라 사람들에게 있어 견훤과는 확실하게 다른 존재였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선물을 한 것은 신라 사람들에게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헤아려진다.³⁶⁾

이렇게 볼 때 고려의 신라에 대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박씨왕대의 거의

33) 음선혁은 태조가 신라 왕실에 93일간이나 머문 것은 경순왕의 정치적 동향을 살피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음선혁, 앞의 논문, 1997, p. 147).

34) 申虎澈, 앞의 책, 1993, p. 124 註 24) 참조.

35) 『高麗史』 1, 세가, 태조 14년 가을 8월

36) 음선혁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신라왕과 왕비 및 백관들과 더불어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태조가 군인과 민간인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고려가 신라의 상국으로서 주변의 변방국가에 선물을 보낸 것과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일방적인 화친 관계에서 벗어나 경순왕대에 와서 군사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화친이 더욱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는 고려의 국력 신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력한 호족들의 귀부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북진정책의 추진에 따라 북방에 諸鎭이 계속 설치되면서 고려는 강역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국력이 신장되어 갔던 것이다. 이는 고려의 꾸준한 국력신장과 그 통일 정책이 주효했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³⁷⁾

4. 王建의 외교 승리와 敬順王의 高麗 歸附

앞 절에서 왕건은 신라에 대하여 이중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신라를 흡수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어 나갔음을 알아보았다. 다시 말하면 왕건은 나아진에 군사를 주둔시켜 신라를 압박하고 또 신라의 상국인 유림을 고려에 인질로 데려와 신라에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라왕 및 군신들 그리고 일반민에 이르기까지 선물을 하고 위무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신라를 흡수하기 위한 왕건의 또 다른 노력은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이 주목된다.

H. 당나라에서 王瓊, 楊昭業 등을 보내어 왕을 책봉하였다(『高麗史』 2, 세가, 태조 16년 봄 3월 辛巳)

H의 기록은 933년 당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와 태조를 책봉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니까 고려가 중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다.³⁸⁾ 그런데 전년인 932년 경순왕은 신라 왕실에 대한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³⁹⁾ 그런데 신라의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그

태조의 이러한 조치는 신라에 대한 강한 흡입력을 발휘하여 신라의 기존질서를 동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음선혁, 앞의 논문, 1997, p. 150).

37) 閔賢九, 『韓國史에 있어서 高麗의 三國統一』, 『歷史上的 分裂과 再統一(上)』, 一潮閣, 1992 p. 53.

38) 閔賢九는 “후당이 백제를 제치며 고려를 승인하고 그 우위를 인정한 것은 이미 한반도에서의 정세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 바 있다(閔賢九, 앞의 책, 1992, p. 71).

39) 『三國史記』 12, 경순왕 6년 여름 4월의 기록을 보면 ‘사신 執事侍郎 金胄과 부사 司賓卿 李儒를 당나라에 보내어 조공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한편 고려에서도 같은 해 11월에 왕중유를 후당에 파견하였다(『고려사』 2, 세가, 태조 2년). 신라가 후당에 사신을 파견하자 고려가 바로 이어 그곳에 사신을 파견한 것인데 이를 통해 신라를 견제하고자 하는 고려의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해에 오히려 고려 태조가 후당으로부터 책봉되었던 것이다. 신라가 외교전에서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은 고려가 대내외적인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진다.⁴⁰⁾ 또한 북방 강역의 확대와 많은 인구의 증가는 고려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⁴¹⁾

고려의 국력이 증강되는 가운데 왕건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견훤이 갑자기 고려에 귀부한 것이다.⁴²⁾ 견훤의 고려 귀부는 왕건이 대신라정책에 쇠기를 박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고 보아진다. 그것은 고려가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가 신라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도 알려준다. 왜냐하면 견훤이 경순왕의 즉위에 일정한 역할을 한 만큼 견훤을 통한 압박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라 왕실에서는 귀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⁴³⁾ 신라의 고려 귀부를 둘러싸고 신라의 정치세력 사이에는 국론 분열이 있었다. 처음 귀부 주장을 내놓은 경순왕을 비롯한 친왕건파라 할 만한 세력은 '더 이상 백성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태자를 비롯한 반대파를 압도하였다. 이를 마지막 고비로 하여 신라의 고려 귀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태조는 경순왕에게 귀부자들 가운데서 최고의 대우를 해 주었다.⁴⁴⁾ 이러한 예우는 경순왕이 고려의 권위에 복종하는 대가로 볼 수 있다.

I. 왕이 天德殿에 나와서 백관을 모아 놓고 말하기를 “내가 신라와 더불어 정중한 맹약을 체결하여 양국의 우호관계를 영구히 하고 각각 자기의 사직을 보전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런데 지금 신라왕이 신하 노릇을 하겠다고 굳이 청하고 경들도 그것을 가하다고 하니 비록

40) 金仁圭, 『高麗 太祖代의 對外政策』, 흥승기편, 앞의 책, 1996, pp. 106~107.

41) 발해인의 내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발해의 경우 태조 9(926)년에 거란에 의해 멸망당하자 왕건은 적극적으로 그 유민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934년 7월에는 태자 대광현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내투하였다. 왕건은 대광현을 크게 우대하여 왕계라는 성명을 주어 그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던 것이다(林相先, 「高麗와 渤海의 關係—高麗 太祖의 渤海 認識을 중심으로—」, 『素軒南都泳博士古稀紀念 歷史學論叢』, 民族文化社, 1993, pp. 128~129). 이 때 발해인의 내투자는 수만 호에 달하거나와, 그들을 고려가 받아들인 것은 북진정책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또한 북방강역의 확대와 더불어 많은 인구의 증가를 가져와 고려의 국력 증강을 가져왔으리라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42) 견훤의 고려 귀부와 관련하여는 申虎澈의 앞의 책, 1993, pp. 147~151을 참조할 것.

43) 『三國史記』 12, 경순왕 9년 겨울 10월

44) 『삼국사기』 12, 경순왕 9년 12월. 이는 견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려사』 2, 세가, 태조 18년 12월 壬申).

나의 마음은 부끄러우나 여러 사람들의 뜻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뜰에서 드리는 신라왕의 배례를 받았다(『高麗史』 2, 세가, 태조 18년 12월 壬申)

I의 기록은 왕건이 개성 천덕전 뜰에서 신라왕의 배례를 받았다고 전한다. 그가 귀부해온 신라왕의 배례를 받은 것은 단순히 항복한 왕에 대한 예절을 치루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도 고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세력들에게 고려의 권위에 따르도록 하려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고려가 신라로부터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고려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국가라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신라의 중앙 정부인 신라 왕실은 세력이 매우 미약한 존재이기는 하였으나 천년을 유지해 온 왕조로서의 명분이 있고 또 왕실로서 권위가 있었다. 또한 신라 정부의 향배는 신라 판도 내의 여러 지방 세력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신라의 항복은 왕건에게 커다란 무게를 더하여 주었다. 그것은 고려가 신라의 전통을 계승한 국가로서의 권위를 피지배층에게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 맺 음 말

태조 왕건은 후삼국의 통합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신라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대신라정책은, 앞서의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화친정책이라고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다. 시간적인 변화와 더불어 태조 왕건의 대신라정책이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라 박씨왕의 존립 시기에 왕건의 대신라정책은 고려 왕실의 위상을 높이는데 있었다. 왕건은 반란군의 한사람으로 성장한 만큼 신라에 대하여 적절한 위상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던 것이다. 이에 신라의 요구를 들어 후백제의 군사력을 견제하기는 하였지만 후백제와 치열한 전투는 피하였다. 또한 경애왕이 죽자 존왕의 의를 내세워 신라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창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이어진에 군대를 주둔시켜 군사적으로 신라를 압박하였다. 이는 대신라정책에 변화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그는 경순왕의 초청으로 신라 왕실을 방문하였으며 상국인 유림을 질자로 삼아 고려로 돌아왔다. 신라에서 돌아온 이후

왕건은 신라왕 및 군신들 그리고 일반민들에게까지 선물을 하고 위무하였다. 이는 신라에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한편 왕건의 이미지 변화를 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왕건이 신라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가운데 견훤이 고려에 항복하였다. 견훤의 고려 귀부는 왕건이 대신라정책에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고 보아진다. 그것은 고려가 신라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견훤이 경순왕의 즉위에 일정한 역할을 한 만큼 견훤을 통한 압박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건은 이후 경순왕의 귀부를 받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신라와 고려의 왕조 교체를 단순한 정권 이양으로 이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고려에게 신라는 계승의 대상인 동시에 극복의 대상이었던 만큼 고려 태조는 온건양면책을 통한 수준에서 대신라정책을 진행시킴으로써 후삼국 통일을 이루어냈던 것이다. 이에 태조의 대신라정책의 기초를 '유화정책' 혹은 '평화정책'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태조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변화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